

한국여성개발원 金이선씨 주장

환경보전운동을 벌이는 여성들의 활동이 수동적인 소비자나 주부의 자원봉사차원을 벗어나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했다. 이미 60년대부터 소비자단체 활동을 통해 환경문제에 관여하기 시작한 한국여성들은

80년대 후반부터는 환경과 생명을 중시하는 생활운동체 운동의 주체가 되어왔다. 특히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자원활동과 쓰레기분리수거 운동, 유기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생활협동조합운동, 일회용품 줄이기, 합성세제 탈쓰

여성의 「세력화」 질서

환경보전운동

해결을 주도하고 기업의 제품생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세련화돼야 한다.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여성개발원(23일) 환경과 여성의 역할이란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金이선 연구원(「한겨레」 환경취재)은 「여성의 세력화」로서, 지역주민 참여자 과학자의 사결정자로서의 적극적인

지원봉사-캠페인 차원 탈피

업체 제품생산에 영향줘야

기대 다양한 차원의 환경보전운동이 여성들의 의해 주도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여성들의 활동이 캠페인과 쓰레기 치우기 차원에 머물러 있어 여성들이 청소년 제대로 하면 환경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오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金연구원의 지적. 그는 「한국 여성의 환경운동이 이를 극복하고 시민운동의 차원이로 발전하기 위해 환경운동본부의 환경·환경정책연구소 등과 프로그래밍의 여성전문가로서의 세련화가 필요하다. 또한 「멕시코에서 음식물 쓰레기로 유기비료를 만드는 공장을 세워 여성인력을 활용하는 것처럼 쓰레기 재활용

「제 1 차 아시아 여성學者워크숍」 개막 (梨大 27일까지)

아시아 지역 여성학의 발달 현황을 점검하고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제 1 차 아시아 여성학자 워크숍」이 25일 이화여자 신문관에서 시작, 27일까지 열린다. 이화여자 한국여성연구소와 아시아 고등교육기관을 지원하는 기독교계재단인 미국연합재단 공동주최로 열린 이번 워크숍에는 8개국서 20여명 참석 여성학 확산방안 논의는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8개국의 여성학자 21명과 국내의 여성학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아시아에서 여성학이 가장 발달한 한국의 연구성과를 소개하고 아시아 전지역에서 여성학 프로그래밍의 확산을 위한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여성학자 인력을 위한 교육 기회 창출과 이 연구소와 여성들의 환경운동을 연계시키고 세계의 개발을 정부와 기업에 요구해 얻어 낼 수 있는 등 정치적 역할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